

‘돌봄 쓰나미’ 오는데 불감증에 빠져 있다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한국의 노인돌봄에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노인으로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로움과 질병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노인이 늘고, 가족 돌봄 부담이 극단으로 치달아 간병살인과 간병자 살이라는 비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돌봄의 위기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노인의 약 11%가 이용하지만, 이용자 증가가 곧 돌봄체계의 충분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종류와 제공공간이 제한적이고, 방문요양 중심의 가사·신체수발에 편중되어 있다. 지속적 간호, 만성질환 관리, 방문재활, 치매돌봄과 가족지원 등 노인의 일상을 지탱할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도농복합지역과 농어촌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서비스가 닿지 않는 것이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을 ‘방문요양 중심의 보험’에서 ‘건강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재가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시간을 근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한계는 더 뚜렷하다. 전체 노인의 5%가 이용하는 큰 제도로 확대되었지만 대부분 단순한 안부·안전확인에 머물고 있다. 실질적 가사지원을 받는 중점돌봄군은 이용자의 약 8%에 불과하다. 외로움과 고립 은둔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인을 위한 특화서비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거절하는 노인도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돌봄의 공백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재가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은 필요 이상으로 일찍 시설에 입소하고, 이는 의료·요양 비용의 폭증으로 이어진다. 가족에게 전가된 부담은 더 참혹하다. 장기간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심신이 소진된 끝에 간병살인·간병자살이라는 파국에 이른다. 노인 자살과 이들 비극은 별개의 사건

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돌봄의 공백이라는 공통의 구조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곳곳의 붕괴 신호 앞에서 ‘돌봄 불감증’에 빠져 있는 듯하다.

보전복지부는 기존 제도의 유지·보완을 넘어 새로운 통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인의 건강과 돌봄은 하나의 문제인데 행정은 여전히 분절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보건의료체계와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서비스를 잇는 국가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가적 전달체계 개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단위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제도의 이름만 바뀔 뿐 돌봄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족과 이웃의 비공식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그 빈자리는 국가의 공식돌봄이 채워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후기노인 진입은 마지막 경고음일지 모른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외로운 노인의 죽음, 지친 가족의 붕괴, 조기 시설입소와 비용 폭증의 쓰나미가 한꺼번에 밀려올 것이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정부가 돌봄 불감증에서 벗어나 노인돌봄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결단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모든 ‘동전주’가 ‘현대전자’는 아니다



기지 수첩

허 정 운
(자본시장부)

2003년 3월, ‘현대전자’의 주가는 135원까지 떨어졌다.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였다. 지금의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현대전자는 ‘SK하이닉스’로 거듭난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됐다.

최근 코스닥 퇴출 요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SK하이닉스가 거론되는 이유다. 지난 7월부터 상장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은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원을 밑돈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회복하지 못해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부실기업을 빠르게 정리해 코스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낮은 주가가 곧 기업의 부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기업은 지난 2월 49곳에서 7월 말 160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49곳은 영업이익의 흑자 기업이었다. 시장의 관심에서 떨어졌거나 주가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까지 가격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주가가 낮은 모든 기업을 ‘제2의 하이닉스’로 볼 수도 없다.

현대전자는 그저 버틴 끝에 살아난 기업이 아니다. 채권단 관리와 21대 1 감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이어갔다. 2003년 3분기에는 영업흑자로 돌아서며 회생의 근거도 보여줬다. 이후 SK그룹 편입과 HBM 시장의 성장까지 여러 전환점이 더해져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과정을 빼고 135원이라는 주가와 현재의 성공만 연결하면 곤란하다. 하이닉스 사례를 앞세워 퇴출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 경우, 사업보다 증자에 의존하거나 상장 지위를 자금 조달에만 활용하는 기업에도 시간을 벌여줄 수 있다. 그 사이 투자자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필요한 것은 퇴출의 속도보다 선별의 정확성이다. 주가와 시가총액은 심사가 필요한 기업을 추리는 기준으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더 입체적이어야 한다. 영업현금흐름과 재무 상태뿐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공시 위반과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의 사업 의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는 제한된 개선 기회를 주고, 그 기간 약속한 자구책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살아날 근거를 보여준 기업에는 시간을 주되, 가능성이라는 말로 상장 지위만 연장하는 기업은 신속히 내보내야 한다.

모든 동전주가 하이닉스가 될 수는 없다. 반대로 지금의 가격만 보고 미래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현대전자가 남긴 교훈은 동전주를 무조건 살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기업과 연명하는 기업을 제대로 구별하라는 데 있다.

/zelkov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일 (음 7월 2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과도한 욕심은 금물. **60년생** 금전운은 지출이 많으니 관리에 신경쓰세요. **72년생**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84년생** 애정운이 하락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마세요.



49년생 너무 외로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1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3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85년생**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62년생** 공적인 일엔 행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74년생** 교통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86년생** 욕심도 좋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51년생 모든 문서 체결은 지금하세요. **63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려 보세요. **75년생** 방황하는 당신의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87년생** 이것 저것 손을 대봤자 싫증만 남을 뿐입니다.



52년생 깊이 있는 인생을 위하여 한가지 일에 열중 하세요. **64년생** 능력 이상의 청탁으로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76년생** 담배도 술이든, 한가지는 절제해 보세요. **88년생**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53년생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5년생**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77년생** 이달 말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9년생** 역시 친구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54년생 원대한 소원이라도 설사리 성취됩니다. **66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78년생** 금전관계로 피곤하기는하나 이내 해결됩니다. **90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5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7년생**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7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91년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쓰세요.



5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67년생**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7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91년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쓰세요.



57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69년생**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오니 기다려보세요. **81년생**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것입니다. **93년생** 행운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58년생 바쁜 한 달을 보낼 것입니다. **70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2년생**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94년생**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수준만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59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71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83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갑니다. **95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치니 주의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역사에서 배우다

역사는 단순히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존재들의 생각과 행동이 무수하게 영향을 끼친 시공간을 아우르는 사건의 흔적이자 에너지의 새김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 및 현재의 인간이 지적·예술적·사회적 활동을 한 산물의 총체 및 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영어에서는 역사를 히스토리(History)라는 용어를 쓴다.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알다”·“보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시공간에 따른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기억하고 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히스토리 단어에서도 보이듯 ‘이야기’(story)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지 않겠는가? 필자의 생각이지만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스토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적 의미의 역사는 사(史)·감(鑑)·통감(通鑑)·서(書)·기(記)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기록된’ 기록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하므로 “서양의 히스토리는 역사 서술자의 주관적인 서술이 중심을 이루는 학문이어서 동양의 사학과는 그 방법이 크게 달라 역사는 새로운 번역 용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다. 그래서인가, 고대 로마의 철학자면서 뛰어난 정치인이었던 마르쿠스 키케로는 “역사는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까지 남겼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는 뜻이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양의 한자성어인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바로 그와 유사한 의미가 있다. 원래 이 말은 공자의 논어 위정(爲政)편에 나온 것이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라고 하였으니 스승의 자격 됨을 말한 것,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스승 된 자들의 지혜와 해안을 강조한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결합형스도쿠

15.30분

결합형스도쿠10

20.50분 120

할인도서

1	2	8	2	9	8	9	7	6
9	6	8	7	2	9	1	2	8
7	2	9	1	6	8	9	2	8
8	7	6	9	2	2	2	9	1
9	8	2	6	8	1	2	9	7
2	9	1	9	8	7	8	6	2
6	8	7	8	9	2	2	1	9
2	1	2	8	7	9	6	8	9
8	9	9	2	1	6	7	8	2

1	6	9	8	2	8	9	7	2
9	8	7	1	6	2	8	2	9
2	2	8	9	7	7	6	1	8
6	7	1	2	8	9	2	9	8
8	8	9	9	7	2	2	6	1
2	9	2	8	1	6	7	8	9
7	9	8	2	8	1	9	2	6
8	1	2	6	2	9	8	9	7
9	2	6	7	9	8	1	8	2